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4년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전월대 비 0.5% 감소

- 2014년 4월 생산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15.6%), 의료정밀과 학(-14.3%), 비금속광물(-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1.9%), 석유정제(15.3%), 화학제품(5.1%)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2.5%(전월대비 포함)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10.0%), 도 소매업(-1.3%),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0%), 금융보험업(2.8%), 부동산·임대(6.8%), 사업시설관리(2.9%), 교육(1.0%)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0.9%(전월대비 1.0% 감소) 증가함.
- 2014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는 증가하였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3%),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8%)에서는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1%(전월대비 1.7% 감소) 감소함
  -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특수산업용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0.7%(전월대비 2.6% 증가)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6.9% 증가,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함. 건설수주

(경상)는 철도 등에서 줄었으나 주택, 발전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42.2% 증가함.

- 2014년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은 상승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국제원자재가격지수(역계열), 채고순환지표 등은 하락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함.

◆ 2014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7% 상승(생활물가지수 1.4% 상승)

- 2014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4(2010년=10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여 지난달(1.5%)에 비해 0.2%p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2					2013					2014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월	1/4p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9	0.3	1.7	0.7	2.4(0.1)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2.0	0.3	1.8	0.7	2.5(0.0)
	출하	10.0	5.4	4.7	2.8	5.6	3.1	1.7	0.6	0.5	1.5	-0.8	0.5	0.2	1.8	0.4	1.9	0.2	2.2(-0.5)
	내수	7.3	4.0	3.8	1.5	4.1	0.8	-0.5	-0.9	-1.2	-0.5	-3.2	-1.9	-1.0	1.6	-1.4	1.7	1.5	4.9(0.8)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2.2	-1.5	-0.9(-1.0)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8	2.1	1.4	2.1	1.8	0.9(-1.0)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0	0.7	1.2	0.8	2.2	2.5	-0.1(-1.7)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1.4	-1.3	-7.5	6.0	10.7(2.6)
물가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1	1.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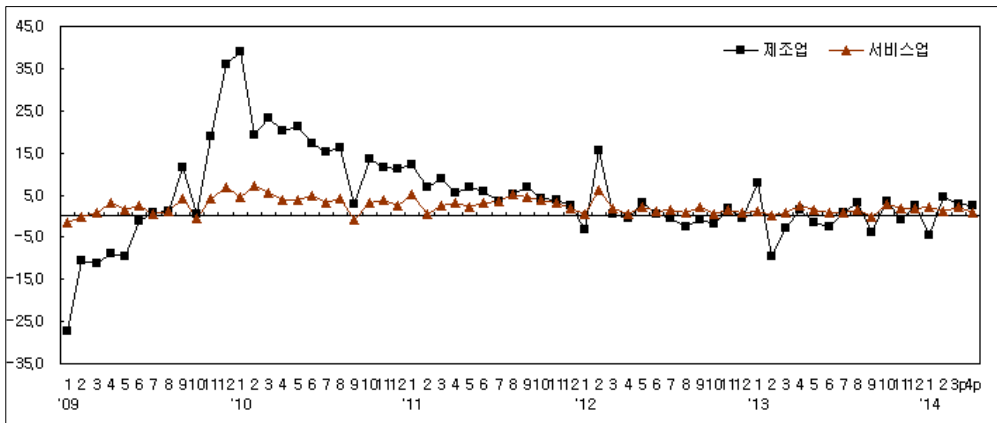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5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의류·신발(4.2%), 주택·수도·전기·연료(3.0%), 가정용품·가사서비스(2.8%), 교육(1.8%), 음식·숙박(1.3%), 식료품·비주류음료(0.8%) 부문 등은 상승하였고, 통신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주류·담배(-0.2%) 부문은 하락함.
- 2014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8.0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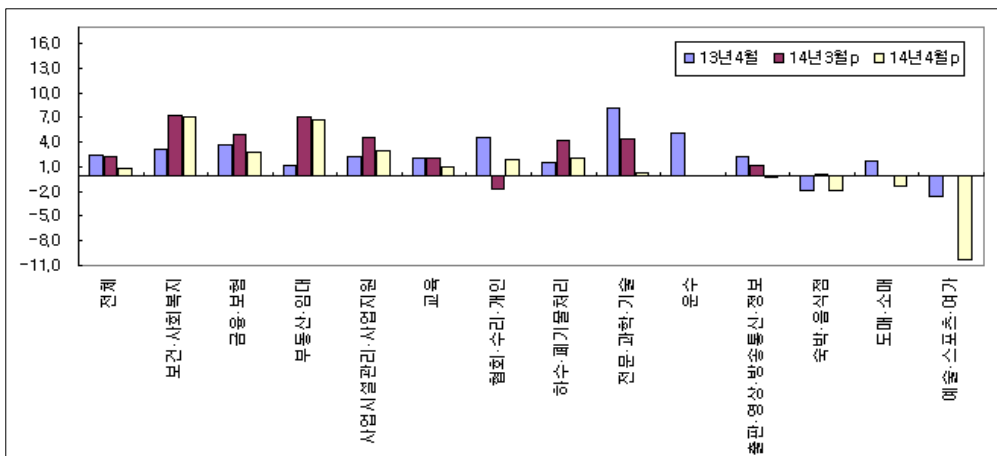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 5),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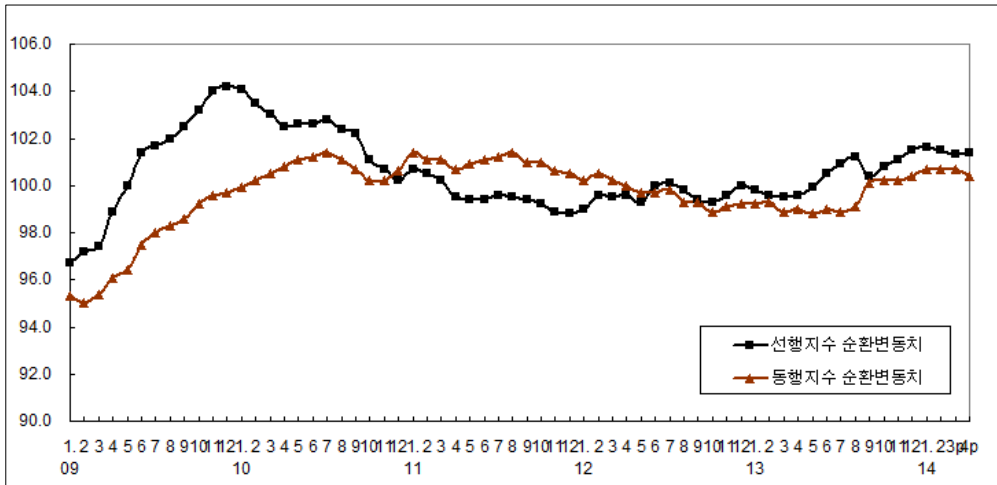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완화**

- 2014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7천 명(2.2%)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45천 명으로 250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17천 명으로 317천 명(2.9%) 증가하였음.
- 2014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4%)과 여성(52.2%)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p, 1.0%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5월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5월 중 취업자는 25,8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3천 명(1.6%)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명(1.4%)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8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2천 명(2.0%)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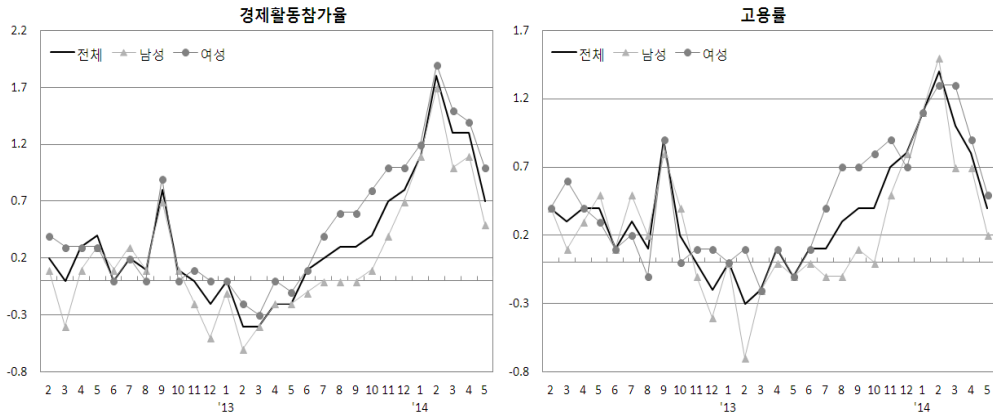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5,526 ( 1.3)	25,091 ( 0.9)	26,138 ( 1.1)	26,195 ( 1.0)	26,187 ( 1.7)	26,078 ( 2.2)	25,945 ( 3.4)	26,714 ( 3.0)	26,762 ( 2.2)	
참가율	61.1	59.9	62.2	62.3	62.1	61.7	61.3	63.0	63.0	
취업자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5,398 ( 1.1)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5,684 ( 2.3)	25,811 ( 1.6)	
고용률	59.4	57.7	60.2	60.4	60.3	60.0	58.8	60.6	60.8	
실업자	722	907	812	797	777	733	1,031	1,030	951	
실업률	2.8	3.6	3.1	3.0	3.0	2.8	4.0	3.9	3.6	
비경제활동인구	16,258 ( 1.5)	16,831 ( 2.0)	15,911 ( 1.5)	15,853 ( 1.8)	15,982 ( 0.5)	16,167 (-0.6)	16,397 (-2.6)	15,700 (-2.3)	15,691 (-1.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6), 『2014년 5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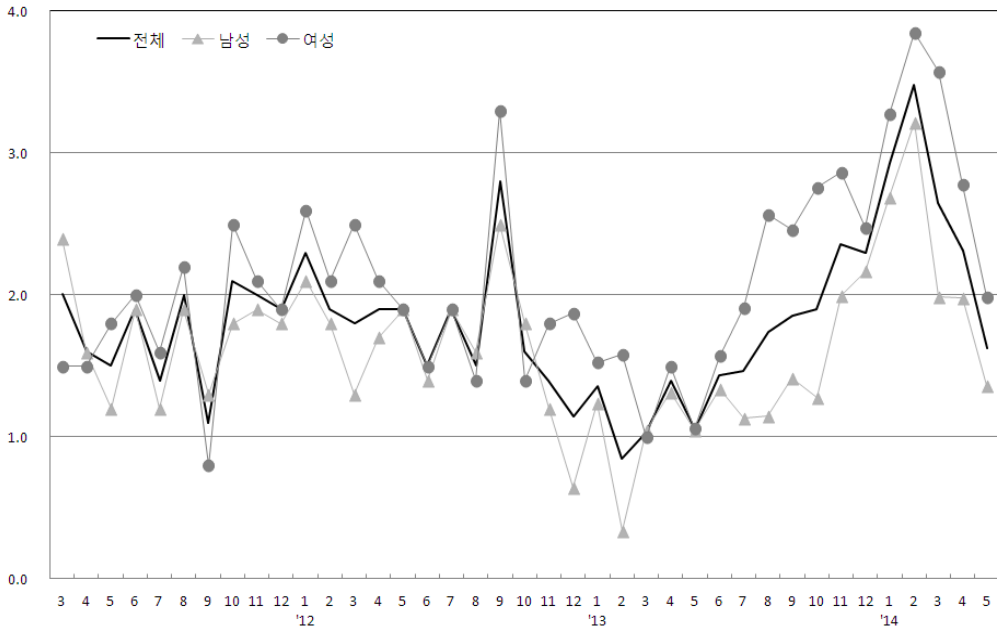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5월 중 실업자는 9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19.3%) 증가,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10.3%)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33.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 여성이 3.7%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2%p, 0.8%p 상승하였음.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2천 명(-1.0%)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0.8%)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천 명(-1.1%)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1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4천 명(-6.7%)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98천 명으로 32천 명(-0.7%) 감소하였음.

◆ 제조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48천 명,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7천 명, 1.6%),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74천 명, 3.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8천 명, -3.4%)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천 명, -0.4%)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4월	5월
전 산업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5,398 ( 1.1)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5,684 ( 2.3)	25,811 ( 1.6)
농림어업	1,518 (-0.2)	1,167 (-0.7)	1,686 (-1.6)	1,714 (-2.4)	1,724 ( 1.1)	1,504 (-1.0)	1,179 ( 1.0)	1,563 (-1.8)	1,656 (-3.4)
제조업	4,196 ( 3.5)	4,156 ( 3.0)	4,182 ( 3.0)	4,192 ( 2.6)	4,152 ( 0.6)	4,245 ( 1.2)	4,279 ( 3.0)	4,288 ( 2.3)	4,324 ( 3.6)
건설업	1,792 (-2.2)	1,656 (-3.7)	1,801 (-0.4)	1,807 (-0.7)	1,775 ( 0.2)	1,783 (-0.5)	1,683 ( 1.6)	1,775 (-0.2)	1,821 ( 0.8)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5,603 ( 1.1)	5,534 (-0.7)	5,585 (-0.2)	5,598 (-0.3)	5,652 ( 0.7)	5,751 ( 2.6)	5,837 ( 5.5)	5,818 ( 5.5)	5,772 ( 3.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682 ( 2.3)	8,656 ( 3.1)	8,974 ( 1.7)	9,013 ( 1.6)	8,990 ( 2.5)	8,994 ( 3.6)	8,865 ( 2.4)	9,149 ( 2.4)	9,160 ( 1.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8 (-0.4)	2,999 (-0.4)	3,082 ( 3.1)	3,074 ( 2.9)	3,102 ( 3.8)	3,054 ( 1.9)	3,055 ( 1.9)	3,077 ( 0.1)	3,062 (-0.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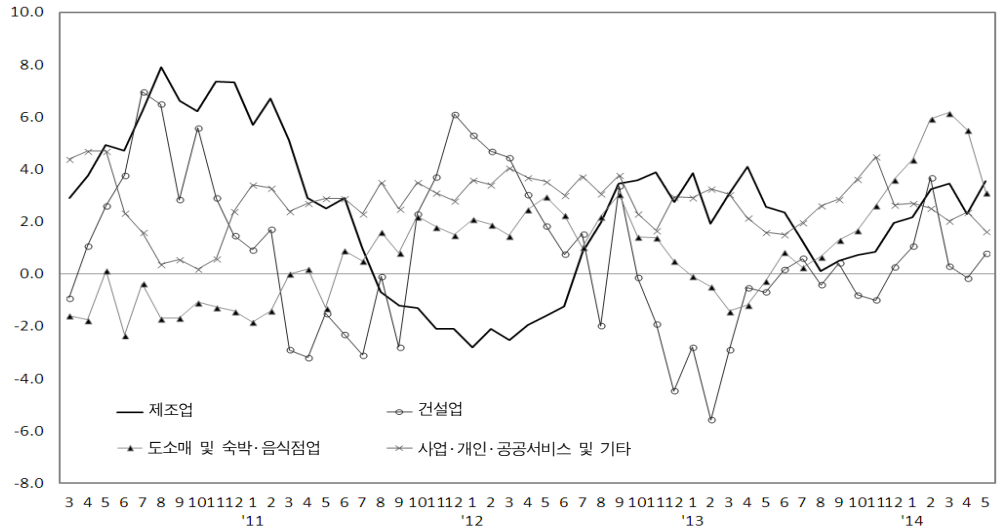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2014. 6), 『2014년 5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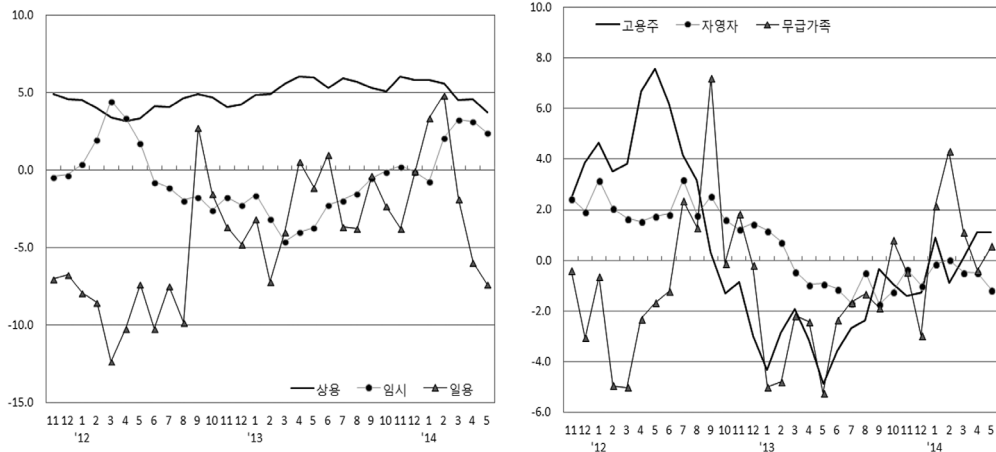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감소 지속

- 2014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 명(-0.3%) 감소, 임금근로자는 18,8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7천 명(2.4%)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67천 명으로 441천 명(3.8%), 임시근로자는 5,084천 명으로 121천 명(2.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74천 명으로 125천 명(-7.4%)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698천 명으로 31천 명(-0.5%)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88천 명으로 7천 명(0.6%) 증가하였음.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3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03천 명(-56.6%)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31천 명으로 4,793천 명(27.6%) 증가. 이는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 중에 석가탄신일(5.17일) 이 포함된 데 따른 기저효과임.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4월	5월
전 체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6,195 ( 1.1)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5,684 ( 2.3)	25,811 ( 1.6)
비임금근로자	6,917 ( 0.6)	6,578 (-1.1)	7,006 (-2.1)	7,010 (-2.6)	7,049 (-1.5)	6,854 (-0.9)	6,597 ( 0.3)	6,951 (-0.1)	6,986 (-0.3)
자영업자	5,672 ( 0.6)	5,520 (-0.5)	5,726 (-1.8)	5,729 (-2.0)	5,740 (-1.4)	5,618 (-0.9)	5,512 (-0.1)	5,713 (-0.1)	5,698 (-0.5)
무급가족종사자	1,245 ( 0.5)	1,059 (-3.9)	1,280 (-3.4)	1,281 (-5.2)	1,309 (-1.6)	1,236 (-0.8)	1,085 ( 2.5)	1,238 (-0.4)	1,288 ( 0.6)
임금근로자	17,887 ( 1.7)	17,606 ( 1.9)	18,320 ( 2.6)	18,388 ( 2.5)	18,361 ( 2.9)	18,492 ( 3.4)	18,316 ( 4.0)	18,734 ( 3.2)	18,825 ( 2.4)
상용근로자	11,288 ( 4.3)	11,379 ( 5.1)	11,697 ( 5.8)	11,726 ( 6.0)	11,848 ( 5.6)	11,925 ( 5.6)	11,985 ( 5.3)	12,148 ( 4.6)	12,167 ( 3.8)
임시근로자	4,933 (-2.2)	4,762 (-3.1)	4,945 (-3.3)	4,964 (-3.7)	4,928 (-1.3)	4,935 ( 0.0)	4,835 ( 1.5)	5,047 ( 3.2)	5,084 ( 2.4)
일용근로자	1,666 (-3.3)	1,465 (-4.8)	1,678 ( 0.2)	1,699 (-1.1)	1,585 (-2.6)	1,631 (-2.1)	1,496 ( 2.1)	1,539 (-6.0)	1,574 (-7.4)
36시간 미만	3,219 ( 0.0)	5,563 (67.9)	4,821 (46.8)	7,786 (136.6)	5,083 ( 7.6)	3,395 ( 5.5)	3,593 (-35.4)	3,422 ( 2.6)	3,383 (-56.6)
36시간 이상	21,271 ( 1.6)	18,099 (-9.9)	20217 (-5.6)	17,338 (-19.6)	19,810 ( 0.2)	21,636 ( 1.7)	20,829 (15.1)	21,944 ( 2.2)	22,131 (27.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 6), 『2014년 5월 고용동향』.

◆ 전 연령대 · 교육수준 실업률 상승

- 2014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8.7%, 1.3%p)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2%, 0.1%p), 고졸(3.9%, 0.7%p), 대졸 이상(3.8%, 0.5%p)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95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00천 명으로 148천 명 증가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722 (2.8)	907 (3.6)	812 (3.1)	797 (3.0)	777 (3.0)	733 (2.8)	1,031 (4.0)	1,030 (3.9)	951 (3.6)	
15~29세	284 (7.0)	343 (8.4)	325 (7.9)	307 (7.4)	328 (7.9)	328 (7.9)	419 (9.8)	426 (10.0)	366 (8.7)	
30~39세	162 (2.7)	195 (3.3)	180 (3.0)	181 (3.0)	170 (2.9)	155 (2.6)	187 (3.2)	214 (3.6)	194 (3.3)	
40~49세	122 (1.8)	143 (2.1)	146 (2.1)	143 (2.1)	131 (1.9)	114 (1.7)	155 (2.3)	179 (2.6)	177 (2.6)	
50~59세	102 (1.8)	127 (2.3)	106 (1.8)	109 (1.9)	106 (1.8)	88 (1.5)	130 (2.2)	137 (2.3)	147 (2.4)	
60세 이상	52 (1.6)	99 (3.4)	56 (1.6)	58 (1.6)	42 (1.2)	48 (1.4)	140 (4.4)	75 (2.0)	68 (1.8)	
중졸 이하	98 (2.0)	148 (3.3)	101 (2.0)	105 (2.1)	86 (1.8)	84 (1.8)	173 (3.9)	112 (2.4)	107 (2.2)	
고졸	321 (3.2)	367 (3.7)	341 (3.3)	330 (3.2)	345 (3.4)	335 (3.3)	443 (4.3)	439 (4.2)	412 (3.9)	
대졸 이상	303 (2.9)	392 (3.7)	370 (3.4)	363 (3.3)	346 (3.1)	313 (2.8)	416 (3.7)	479 (4.2)	433 (3.8)	
취업무경험실업자	39	61	48	45	54	49	83	66	51	
취업유경험실업자	683	845	764	753	723	684	948	964	900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6), 『2014년 5월 고용동향』.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3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2014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5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000천 원) 1.8% 증가함.

– 2014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3.1%), 초과급여(8.8%)가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3,237천 원을 기록하였음.

- ※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2013년 3월 12.5시간 → 2014년 3월 13.0시간)
- 반면,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함.
- 한편,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1,388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4년 3월 실질임금은 0.5% 증가함.
  - 소비자물가(2010년 기준)가 반영되는 실질임금은 2014년 3월 기준 0.5% 증가함 (그림 8 참조).
  - 2014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은 1.8% 증가한 영향이 반영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3월		1~3월	
					평균	3월	평균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 1.0)	2,995 ( 5.3)	3,111 ( 3.9)	3,164 ( 3.7)	3,000 ( 4.1)	3,256 ( 2.9)	3,054 ( 1.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 5.3)	3,299 ( 3.8)	3,346 ( 3.8)	3,174 ( 4.0)	3,443 ( 2.9)	3,237 ( 2.0)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578 ( 4.4)	2,559 ( 4.7)	2,572 ( 4.9)	2,642 ( 3.2)	2,651 ( 3.1)
	초과급여	179 (-8.4)	181 ( 1.0)	184 ( 1.7)	176 ( 0.8)	184 (-1.6)	188 ( 6.8)	200 ( 8.8)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537 ( 1.8)	611 ( 1.1)	418 ( 1.1)	613 ( 0.4)	386 (-7.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377 ( 6.5)	1,377 ( 5.5)	1,353 ( 5.2)	1,416 ( 2.8)	1,388 ( 2.5)
소비자물가지수		104 ( 4.0)	106 ( 2.2)	108 ( 1.2)	107.5 ( 1.5)	107.6 ( 1.5)	108.8 ( 1.2)	109.0 ( 1.3)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2	2.5	1.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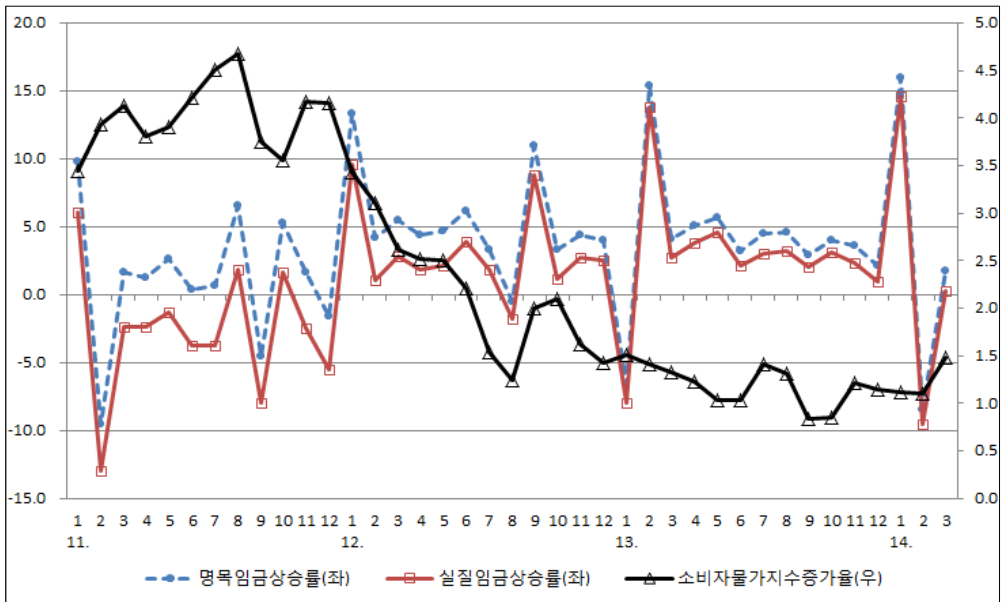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5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164천 원)대비 2.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3월 평균대비 2.9% 상승한 3,44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3년 1~3월 평균대비 3.2%, 초과급여는 6.8%, 특별급여는 0.4% 상승하여 모두 전년동평균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3년 1~3월 평균 대비 2.8% 상승한 1,41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4년 1~3월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1.7% 상승함.
  - 2014년 1~3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로 2013년 1~3월 평균 수준인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2014년 1~3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전년동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지만 명목임금상승률 둔화폭이 더 큰 영향으로 실질임금증가율이 전년동평균대비 낮은 수준인 1.7%를 기록함.

◆ 2014년 3월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등 몇 개의 산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임금이 증가

- 2014년 3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여가관련 서비스업(6.0%), 부동산업 및 임대업(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2%), 제조업(4.0%) 등에서 임금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 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 광업(-0.4%) 등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감소함.
  - － 이 세 산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전년동월대비 1~3%대의 임금상승을 기록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2,995 ( 5.3)	3,111 ( 3.9)	3,164 (3.7)	3,000 ( 4.1)	3,256 ( 2.9)	3,054 ( 1.8)
광업	3,470 ( 4.9)	3,557 ( 2.5)	3,609 (6.6)	3,449 ( 3.3)	3,488 (-3.4)	3,436 (-0.4)
제조업	3,221 ( 6.1)	3,371 ( 4.7)	3,488 (6.0)	3,108 ( 4.7)	3,683 ( 5.6)	3,233 (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 2.9)	5,283 (3.5)	6,406 ( 8.1)	5,586 ( 5.7)	6,739 ( 5.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 6.7)	2,743 ( 3.3)	2,693 (4.7)	2,613 ( 4.9)	2,793 ( 3.7)	2,702 ( 3.4)
건설업	2,273 ( 4.2)	2,414 ( 6.2)	2,477 (6.1)	2,394 ( 6.2)	2,530 ( 2.1)	2,432 ( 1.6)
도매 및 소매업	3,122 ( 6.1)	3,168 ( 1.5)	3,186 (1.4)	3,106 ( 3.9)	3,197 ( 0.4)	3,146 ( 1.3)
운수업	2,589 ( 8.2)	2,732 ( 5.5)	2,679 (6.5)	2,549 ( 5.5)	2,685 ( 0.2)	2,592 ( 1.7)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 5.2)	1,772 ( 1.9)	1,744 (2.3)	1,715 ( 4.1)	1,774 ( 1.7)	1,732 ( 1.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 4.3)	3,936 ( 2.2)	4,103 (1.4)	4,218 ( 3.0)	3,930 (-4.2)	3,873 (-8.2)
금융 및 보험업	4,988 ( 4.6)	5,058 ( 1.4)	5,395 (1.4)	5,128 (-2.8)	5,430 ( 0.6)	5,284 (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 8.8)	2,269 ( 3.4)	2,214 (0.4)	2,155 ( 1.1)	2,318 ( 4.7)	2,280 ( 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 6.3)	4,243 ( 3.2)	4,111 (1.1)	4,043 ( 4.1)	4,380 ( 6.5)	4,277 ( 5.8)
사업서비스업	1,789 ( 5.3)	1,883 ( 5.2)	1,848 (4.3)	1,844 ( 7.4)	1,914 ( 3.6)	1,889 ( 2.5)
교육서비스업	3,123 ( 4.6)	3,261 ( 4.4)	3,475 (5.3)	3,095 ( 5.7)	3,563 ( 2.5)	3,166 (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 4.7)	2,662 ( 2.0)	2,676 (1.1)	2,615 ( 0.5)	2,636 (-1.5)	2,565 (-1.9)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 3.8)	2,326 ( 5.2)	2,343 (8.4)	2,273 ( 7.4)	2,422 ( 3.3)	2,410 ( 6.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 2.0)	2,226 (-0.1)	2,258 (0.0)	2,153 ( 1.3)	2,218 (-1.8)	2,160 ( 0.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3월 평균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7%), 제조업(5.6%)의 임금증가가 두드러짐.
  - 이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4.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7%), 사업서비스업(3.6%) 등에서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 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4.2%), 광업(-3.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 등에서는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하락함.

◆ 2014년 3월 300인 이상 사업체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주도

- 2014년 3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300인 이상에서 주도함.
  - 2014년 3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2.9%), 초과급여(5.4%)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2,899천 원을 기록한 반면, 특별급여는 15.3% 감소함.
  - 한편,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2% 상승한 1,400천 원을 기록함.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4,46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여(4.1%), 초과급여(17.4%), 특별급여(2.3%) 모두 증가한 영향임.
  -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7.8% 증가한 1,279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3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의 상승률이 두드러짐.
  -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정액급여(3.1%)와 초과급여(6.2%)가 증가한 영향으로 2.1% 증가한 2,991천 원을 기록함.
  - 임금총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특별급여 지급률이 전년동평균대비 6.3% 하락한 영향으로 상승률 증가폭은 둔화함.
  - 한편,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8% 상승한 1,418천 원을 기록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3.9%), 초과급여(8.9%), 특별급여(7.9%)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5.4% 증가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8% 상승한 1,400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46( 3.8)	3,174( 4.0)	3,443( 2.9)	3,237( 2.0)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59( 4.7)	2,572( 4.9)	2,642( 3.2)	2,651( 3.1)
	초과급여	181( 1.0)	184( 1.7)	176( 0.8)	184(-1.6)	188( 6.8)	200( 8.8)
	특별급여	527( 5.8)	537( 1.8)	611( 1.1)	418( 1.1)	613( 0.4)	386( -7.8)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77( 5.5)	1,353( 5.2)	1,416( 2.8)	1,388( 2.5)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930( 3.6)	2,866( 4.7)	2,991( 2.1)	2,899( 1.2)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09( 4.7)	2,414( 4.7)	2,485( 3.1)	2,484( 2.9)
	초과급여	156( 3.5)	160( 3.0)	151( 2.2)	162( 2.9)	161( 6.2)	171( 5.4)
	특별급여	345( 7.7)	345(-0.3)	369(-2.0)	289( 5.7)	346(-6.3)	245(-15.3)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93( 6.0)	1,369( 5.0)	1,418( 1.8)	1,400( 2.2)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828( 4.4)	4,271( 2.3)	5,089( 5.4)	4,465( 4.5)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91( 5.0)	3,132( 5.4)	3,213( 3.9)	3,259( 4.1)
	초과급여	275(-3.9)	270(-1.6)	266(-1.8)	260(-10.2)	290( 8.9)	306( 17.4)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470( 4.4)	879(-3.8)	1,586( 7.9)	900( 2.3)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09( 0.1)	1,186( 8.3)	1,400(15.8)	1,279(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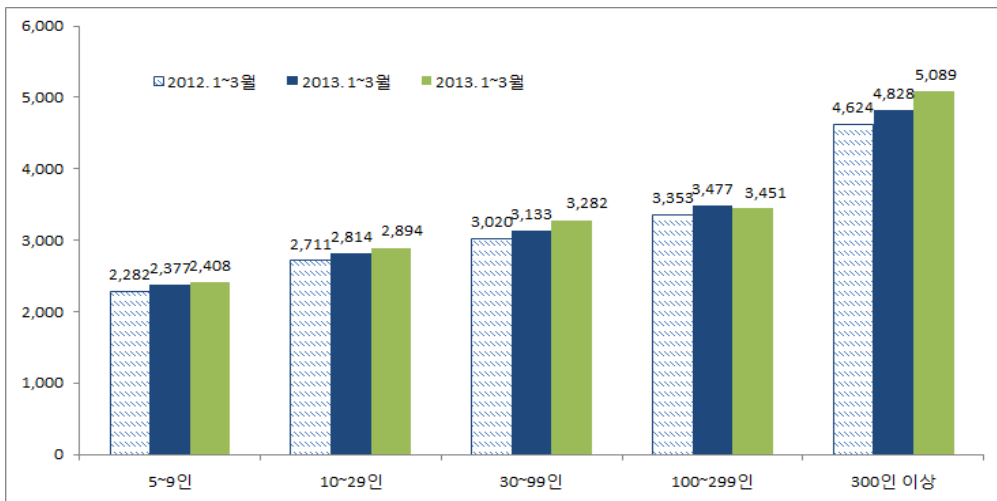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3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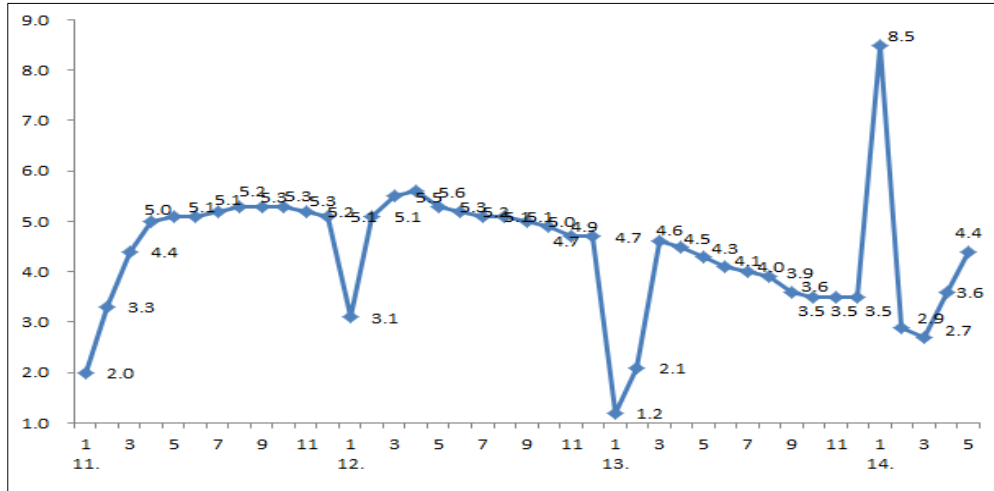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5월 협약임금 인상률 4.4%

- 2014년 5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4%로 2013년 5월 인상률(4.3%)에 비해 0.1%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4년 3월 근로시간 2.9% 증가

-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2014년 3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시간 (2.9%) 증가함.
  - 2014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4.5시간)은 전년동월(169.5시간)에 비해 5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3년 3월 대비 1일 증가한 영향이 반영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6.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함.
- 2014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4% 감소함.
  - 2014년 1~3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0.7시간)에 비해 0.6시간 감소함.



- 2014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1%(175.2시간)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시간은 5.2%(120.5시간)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비해 상용근로시간이 주요한 영향을 미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체 근로시간	174.3(-1.1)	172.6(-1.0)	170.7(-2.3)	169.5(-4.3)	170.1(-0.4)	174.5( 2.9)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5.1(-2.6)	174.8(-4.6)	175.2( 0.1)	180.9( 3.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3.2(-2.2)	162.3(-4.5)	162.6(-0.4)	167.8( 3.4)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1.9(-6.3)	12.5(-6.0)	12.5( 5.0)	13.0( 4.0)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 0.2)	127.1( 2.5)	119.7( 0.8)	120.5(-5.2)	116.1(-3.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3월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4년 3월 근로일수가 2013년 3월 대비 1일 증가한 영향으로 건설업(-1.0%), 운수업(-0.6%)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4년 3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9.7%), 금융 및 보험업(6.0%), 제조업(5.0%)에서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고, 그 외 대부분 산업에서 1~5%가량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4년 3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2.1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49.8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4년 1~3월 평균 근로시간 증감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2014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4.2%), 운수업(-2.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7%), 광업(-1.6%) 등임.
  - 반면, 교육서비스업(1.7%), 제조업(1.3%), 금융 및 보험업(1.1%), 여가관련 서비스업(1.7%)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1~3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0.7(-2.3)	169.5(-4.3)	170.1(-0.4)	174.5( 2.9)
광업	185.3(-0.9)	180.6(-2.5)	178.9(-3.6)	177.2(-6.4)	176.0(-1.6)	184.8( 4.3)
제조업	186.4(-2.2)	185.0(-0.8)	181.9(-2.5)	181.8(-4.8)	184.2( 1.3)	190.8( 5.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1.8(-1.9)	167.6(-4.0)	169.3(-1.5)	169.2( 1.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78.8(-3.1)	178.6(-5.7)	176.9(-1.1)	180.7( 1.2)
건설업	152.5(-0.9)	152.7( 0.1)	155.9( 1.6)	151.3(-1.6)	149.4(-4.2)	149.8(-1.0)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1.5(-1.3)	170.8(-3.0)	170.3(-0.7)	175.6( 2.8)
운수업	181.7( 0.1)	177.8(-2.1)	175.0(-3.6)	176.8(-4.0)	171.4(-2.1)	175.7(-0.6)
숙박 및 음식점업	186.6( 0.2)	177.3(-5.0)	173.0(-6.9)	171.4(-6.3)	174.5( 0.9)	174.6( 1.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0.4(-1.4)	158.5(-3.9)	161.5( 0.7)	166.0( 4.7)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1.3(-1.5)	158.5(-4.2)	163.1( 1.1)	168.0(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89.9(-2.8)	190.0(-3.7)	188.5(-0.7)	192.1( 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0.6(-2.8)	160.4(-4.5)	161.9( 0.8)	167.6( 4.5)
사업서비스업	173.1( 0.6)	172.3(-0.5)	169.4(-2.2)	168.2(-3.6)	169.8( 0.2)	174.9( 4.0)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49.1(-2.0)	142.7(-5.9)	153.2( 2.7)	156.6(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 0.7)	172.0(-1.6)	169.8(-2.4)	169.1(-4.4)	166.9(-1.7)	171.3( 1.3)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1( 0.6)	158.0(-0.1)	153.9(-0.9)	155.8(-2.7)	156.5( 1.7)	158.4( 1.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5.6(-1.6)	164.2(-4.3)	162.1(-2.1)	164.7( 0.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3월 평균값은 누적 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3월 평균 100인 미만 사업체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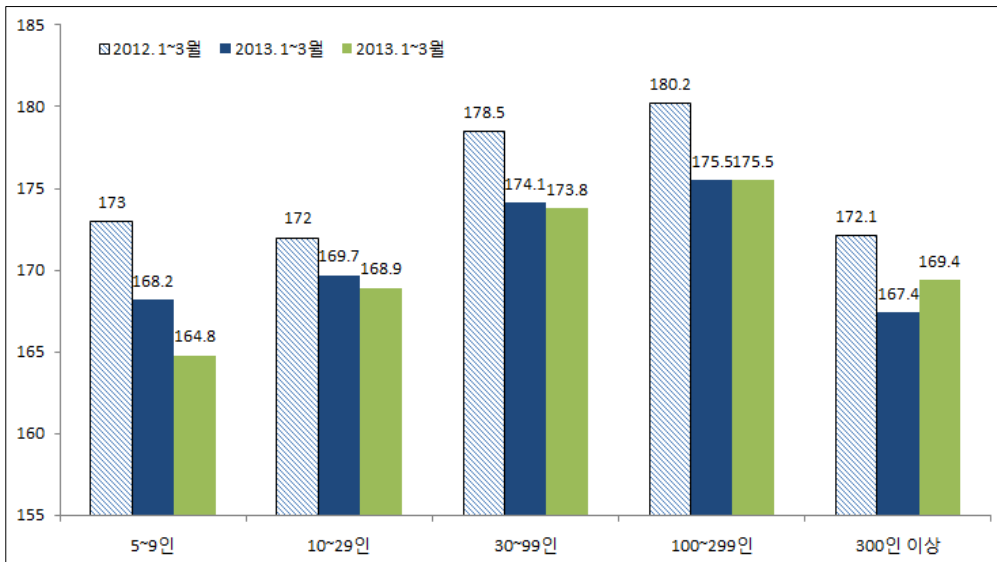
○ 근로일수 1일 증가 영향으로 2014년 3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6%,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함.

- 한편, 2014년 1~3월 평균으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체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에서는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4년 1~3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0%,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0.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2% 감소하였고,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동일한 175.5시간을 기록함.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2% 증가했는데, 이는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그림 11 참조).

[그림 11] 전체 근로자 사업체규모별 1~3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가계수지 동향

### ◆ 2014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4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5.3%), 사업소득(3.2%), 이전소득(1.8%)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함(실질로는 3.9%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4.4%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20.9%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의류·신발(-1.2%), 주거·수도·광열(-0.7%)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비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음(실질로는 3.2%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8.9%), 연금(5.1%), 사회보험(7.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 1/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음.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3				2014	
	1/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192.6	1.7	4,163.2	1.7	4,403.3	5.0
경상소득	4,030.4	2.1	4,041.0	1.7	4,207.2	4.4
근로소득	2,758.3	2.5	2,778.1	2.2	2,903.5	5.3
사업소득	834.8	0.1	876.8	0.4	861.4	3.2
재산소득	22.5	16.4	20.2	-9.5	20.1	-10.6
이전소득	414.7	3.2	365.9	2.1	422.3	1.8
비경상소득	162.2	-8.5	122.2	3.1	196.0	20.9
소비지출	2,542.6	-1.0	2,483.6	3.0	2,653.6	4.4
비소비지출	802.0	1.5	759.4	3.8	840.2	4.8
처분가능소득	3,390.5	1.7	3,403.8	1.3	3,563.1	5.1
흑자액	848.0	10.8	920.1	-3.0	909.5	7.3
흑자율	25.0	2.1	27.0	-1.2	25.5	0.5
평균 소비성향	75.0	-2.1	73.0	1.2	74.5	-0.5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4. 5),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 2014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근로소득은 3, 4분위에서 각각 7.0%, 6.5%로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 증가율(5.9%)이 5분위 증가율(4.5%)을 상회함.

〈표 12〉 2014년 1/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가구원 수	251명		311명		336명		350명		356명	
가구주 연령	59.7세		48.9세		47.0세		46.2세		46.9세	
소득	1,349.6	4.6	2,824.7	6.1	3,912.8	5.5	5,226.7	5.0	8,700.0	4.6
경상소득	1,247.9	4.9	2,723.7	6.1	3,773.2	4.7	5,072.3	4.7	8,216.5	3.4
근로소득	556.9	2.0	1,653.0	4.9	2,480.2	7.0	3,584.3	6.5	6,240.8	4.3
비경상소득	101.7	1.5	100.9	5.2	139.6	29.0	154.4	13.5	483.5	30.4
가계지출	1,547.6	0.9	2,550.0	5.2	3,356.6	5.8	4,126.6	4.3	5,886.7	4.5
소비지출	1,289.4	1.1	2,055.1	4.6	2,643.0	5.6	3,141.9	4.7	4,137.6	4.3
비소비지출	258.2	-0.4	494.9	8.0	713.7	6.5	984.7	3.1	1,749.0	4.9
처분가능소득	1,091.4	5.9	2,329.8	5.7	3,199.2	5.2	4,241.9	5.4	6,950.9	4.5
흑자액	-198.0	18.9	274.7	14.9	556.2	3.5	1,100.1	7.7	2,813.3	4.8
흑자율	-18.1	5.6	11.8	0.9	17.4	-0.3	25.9	0.5	40.5	0.1
평균 소비성향	118.1	-5.6	88.2	-0.9	82.6	0.3	74.1	-0.5	59.5	-0.1

자료: 통계청(2014. 5),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성재민,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5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4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211건)보다 131건 높은 수치임.

- 지난 5월 조정성립률 54.2%
  - 지난 5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7.6%에 비해 13.4%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3〉 2013, 2014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	조정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5	342	297	130	57	73	110	14	96	24	33	44	54.2
2013. 5	211	166	98	57	41	47	20	27	6	15	45	67.6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9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47건)보다 57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29.2%(52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70.8%(126건)를 차지함.

〈표 14〉 2013, 2014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5	190	178	50	2	55	16	55	0	12
2013. 5	247	98	36	4	24	8	26	0	15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재판부, “전교조 범외노조”

-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범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교조는 설립 15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함.
  -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4호와 관련해 “근로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힘.

- 이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시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과 관련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하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 통보가 적합한 집행명령이었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설립신고 취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힘.
  - 판결 후 교육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고 지침을 전달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 △본부·지부 사무실 반납 등을 지시함.
- 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함.
-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9명의 해고자를 핑계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탄압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척도인데 이번 판결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게 되었다”며 우려함.
  -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국제교원노련은 “퇴직자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힘.
  - 반면, 여당은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고,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며 “전교조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권 노조가 아닌 만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아니다**

-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함께 어학성적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신의칙 위배’라며 대응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이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아시아나항공은 연 8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달과 설·추석·7월(여름휴가)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과 자격수당·청조보안수당·항공기술수당·교통보조비·근속수당·직무수당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함께 어학성적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과 2009년 연속적자를 겪고 2010년에는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이행)에 돌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신의칙 위배’라고 주장함.
- 서울중앙지법은 회사가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0~2012년 당시 순이익을 기록한 점, △회사 자본금이 8,000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 93억 원 추가 지출이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인건비의 1.3%에 불과한 점, △통상임금 인상률 최대 48.6%, 실질임금 인상률 30.6%라는 회사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신의칙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어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캐빈어학수당은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함.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코레일의 직위해제 징계 부당

- 코레일이 지난 파업에 참여한 8,656명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에 대해 노조는 부당직위해제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올해 2월 말 전국의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처음으로 서울지노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함.
  - 사측은 심문과정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노조는 “파업참여 여부는 근무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파업의 참여로 인해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함.
  - 게다가 코레일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심판회의에 앞서 노조는 지노위 앞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는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씨티은행, ‘희망퇴직 신청자 숨아 내기’

-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자가 700여 명(씨티은행 직원의 15% 수준)이라며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핵심인력은 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정해 놓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특수영업부와 전략영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씨티은행지부와 갈등이 깊어짐.
  -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적격자는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핵심인력은 은행이 나가서는 안될 핵심인력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대규모 점포폐쇄에 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에 나섰다.
  - 이는 최대 65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목표치를 초과하자 부적격자나 핵심인력에 대해 숨아 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됨.
  - 지부는 은행의 태도에 반발하며 투쟁의 강도(1단계 준법투쟁, 2단계 보험·대출·카드상품 판매 거부, 3단계 지역·영업점별 부분파업, 4단계 시한부 단계적 파업)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와 같이 단계를 높일 계획임.

◆ NH농협금융, ‘우리아비바생명 구조조정’

- NH농협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이 패키지여서 인수하였지만 경영진단 결과 가치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말 농협금융은 우리아비바생명에 30% 이상인 직원 100여 명의 희망퇴직 추진을 요구하고 이를 우리아비바생명지부에 통보함.
  - 우리아비바생명은 체결하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약과 희망퇴직을 연계하고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지부는 “농협생명은 생보업계 3~4위 규모의 회사인데도 직원은 고작 1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330명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라 오히려 통합 뒤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함.
  - 이에 농협금융은 “우리아비바생명을 바로 통합하면 농협생명의 가치가 훼손될 정도인 만큼 통합은 경영효율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이며 “인력 효율화는 43개 지점을 활성화할지 폐쇄할지를 결정한 뒤 진행하겠지만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힘.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원·하청 3개 지부 전면 파업**

- 지난 9일 씨앤앰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중지되자, 희망연대노조(씨앤앰 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함.
  - 원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씨앤앰지부는 원청사인 씨앤앰과, 나머지 두 지부는 협력업체들과 각각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다단계하도급 금지 △고용보장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는데 실패함.
  - 노조 관계자는 “협력업체 대표단이 원청의 눈치를 보면서 교섭에 소극적인 만큼 원청이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원청의 태도를 보고 파업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원청인 씨앤앰과 티브로드홀딩스에 직접교섭을 요구함.
- 파업 진행 중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을 대신해 대체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파업 장기화가 우려됨.
  -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지회가 설립된 22개의 티브로드 기술·고객센터 중 안양 기술센터를 비롯한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함.
  -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반발해 지난 10일 전면파업 이후 지부별로 순환파업 하던 것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티브로드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티브로드지부는 앞으로도 전면파업을 계속하고 투쟁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힘.

◆ **집배원, ‘토요일 휴무’ 7월 시행 가능한가**

- 지난해 말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집배원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하되 대국민 홍보와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6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을 둔다고 합의하였지만, 본부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아 ‘토요일 휴무’ 실행안건에 대해 노사가 갈등을 빚음.
  - 노조는 “먼저 토요일 휴무를 시행한 뒤 매출 문제나 상황변화가 일어나면 재협의를 하자”고 요구함.
  -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토요일 휴무는 택배 매출액의 큰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국민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함.
  - 이에 노조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1998년 도입됐지만 우체국 노동자들만은

주말 없이 연간 3,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노사간 신의칙을 지켜 지금이라도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함.

- 또한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토요일 집배 폐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3만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 퇴진운동과 노동계·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해 사상 초유의 총파업까지 가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단하라’

○ 지난달 17일 서울역광장에서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낙하산 인사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공공기관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낙하산 인사,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마치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이 이유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함.
- 이어 세월호 참사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적은 복리후생비용 감축이 아닌, 노동조합 무력화 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함.
- 또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단, △일방적 단체협약 개정 지침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 △낙하산 인사 중단, △기능조정, 민영화 및 안전규제 완화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 제안을 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화 자세를 요구함.

#### ◆ 기업·경총, 국회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반대

○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든 운송업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기업과 경총이 우려하는 입장을 밝힘.

- 철도, 항공업계는 철도·항공분야의 범위가 넓어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다고 100% 정규직 채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또한 한 항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무관한 단순 티케팅 업무를 보는 일부 비정규직까지 정규직화해야 한다면 기업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코레일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선까지 볼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힘.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짓기 전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윤리 인식을 강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안전 문제를 비정규직에서 찾는다는 것이 모순”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짓기 전에 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과 방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줄이면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육아 외에 학업·간병·점진적 퇴직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현재 관계부처들과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중임.
  - 지원내용은 해당 사유로 전일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30만 원, 대기업 노동자 1명당 2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해당기업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 지급도 검토중임.
  - 게다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올해 1년까지 가능한 단축근무도 내년부터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